금융위원회	보 도 반 박	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7.14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은주 (02-2100-1730)	담 당 자	고선영 사무관 (02-2100-1741)

제 목 :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(이투데이 7.1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□ 이투데이는 7.14일 「**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... 무더기 폐쇄 위기감**」 제하 기사에서

○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한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**전혀 사실이 아닙니다**.

○ **특정금융정보법**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**실명확인 입출금 계정**은 **은행**이 **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**를 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
□ 상기 보도와 같이 **사실과 다른 내용**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**관련 보도에 신중**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